

중증 발달장애 아동 음악치료사의 음악 개입 경험 : 도전적 행동을 중심으로

황정이¹, 박지원², 문소영^{2*}

¹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 ²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Music intervention experience of a music therapist for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challenging behavior.

Jeong-I Hwang¹, Ji-Won Park², So-Young Moon^{2*}

¹Interdisciplinary Program of Psychology Rehabilitation, Myongji University

²Music Therapy Department, Myo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음악 개입 경험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의도적 표집을 통해 모집된 음악치료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 화상 면담 및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Colaizzi의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악 개입 경험은 21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 모음,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3가지 범주는 음악치료 세션에서 도전적 행동의 발현 정도에 따라 '도전적 행동 예방 차원의 음악적 개입',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음악적 개입', '돌발 상황에 따른 비음악적 개입'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경험내용을 토대로 도전적 행동 유형을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주의 분산 행동', '성 관련 행동', '기타 행동'의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음악 개입 제안을 정리하였다. 음악의 기능적 사용, 직관력과 유연성, 환경조성의 중요성과 음악치료사가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관해 알고 대응 전략을 예비하고 모색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일각이지만 중증 발달장애 아동 음악치료 현장의 실증적 지침으로써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music therapists' experiences with interventions for challenging behaviors exhibited by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video interviews, phone calls, and e-mail exchanges with six music therapists recruited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From analyzing the data by using Colaizzi's method, music intervention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21 themes, seven thematic collections, and three categories. The categor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hallenging behavior during music therapy sessions. They are: 1) musical intervention to prevent challenging behavior, 2) musical intervention to support challenging behavior, and 3) non-musical intervention based on unexpected situations. From these experiences, four types of challenging behaviors were classified: safety-problematic behavior, distraction-related behavior, sex-related behavior, and other behavior, and we summarize suggestions for music intervention.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al use of music, intuition, flexibility, and environment creation. In addition, music therapists should know about the challenging behaviors exhibited by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y must prepare and seek coping strategies. Although this is only a partial study, it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 guideline in the field of music therapy for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llenging Behavior, Music Therapist, Music Intervention,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Moon(Myongji Univ.)

email: symoon@mju.ac.kr

Received April 13, 2023

Accepted June 2, 2023

Revised May 17, 2023

Published June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음악치료 시간, 자리 이탈이 잦던 아동이 음악치료사의 노랫소리에 손뼉 치며 자리로 돌아와 머무를 때, 벽을 치는 것으로 상동행동 하던 아동이 드럼을 두드리며 치료사와 눈을 마주치는 경험은 음악의 치료적 영향력에 대한 확신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여러 시행착오와 소진도 뒤따른다. 연구자들은 임상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음악치료사이다. 내담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음악 개입 방안에 관해 대화하는 중, 중증 발달장애 아동들의 음악치료 세션은 '나 혼자만의 도전'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이 의사소통, 사회성, 자조 기술, 인지, 운동 등의 영역에서 해당 연령대에 기대되는 발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발달 과정 중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

도전적 행동은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2]. 도전적 행동은 전체 발달장애 아동의 약 50%에게서 나타나며 그 형태가 다양하다[3]. 자해, 타해, 파괴, 과잉, 강박, 상동행동, 소리 지르기, 울음, 불순응, 방해, 고집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며[4,5], 청소년기에는 성 관련 행동이나 흥분, 주의산만과 더불어 불안, 우울감으로 인한 도전적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6]. 도전적 행동의 원인은 과제 회피, 관심 끌기, 요구 획득, 감각 자극 추구 등이다[5]. 이런 행동이 장애 아동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도전적 행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돌봄의 어려움, 나아가 프로그램 진행 방해 및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7].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대부분 생애 초기에 발견되고 발달이 현격히 지연되며 대개 평생 지속되므로 장애 진단판정과 함께 재활치료와 교육을 시작한다. 또한 일상에서의 자립생활이 어려워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8].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의사소통, 인지,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9]. 여기에는 음악 재활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 유형 및 필요에 따라 음악을 기능적으로 적용한다.

음악은 인지 및 언어 기능이 낮은 중증 발달장애 아동에게 청각 자극인 소리로써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생리적, 정신적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며 운동, 의사소통, 인지, 정서, 사회적 기능향상에 음악적인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다[10]. 음악적 교류는 눈 마주침, 주고받기, 공유, 공동 관심 등 초기 의사소통 기술을 촉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하고 참여 동기, 지속 동기를 부여하는 강화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11]. 또한 음악 활동을 통해 상동행동, 자리이탈, 지시 미수행이 감소하고 주의집중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자기표현에 영향을 주는 눈 마주침,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2-14]. 한편, 중증 발달장애인의 치료에서는 구조화된 활동보다는 비지시적이며 모방과 반영 기법을 사용한 즉흥 연주가 상동행동의 감소와 사회, 의사소통의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도 있다[15,16].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와 관련된 음악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그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임상 현장에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만나 음악 개입을 할 때면 우리는 '오늘은 OO이가 왜 그랬을까?'라는 난제에 봉착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잦은 소진과 진행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 제공에 대한 아동의 무반응 태도에 지치기도 하였다. 이는 중증 발달장애 아동들의 컨디션 차이와 매 상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임상을 하는 다른 음악치료사의 음악 개입 경험은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제안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임상에서의 음악 개입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제안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임상에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에 대해 음악치료사가 음악 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경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2가지 연구 질문으로 접근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음악 개입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 유형에 따른 음악치료에서의 음악 개입 제안은 어떠한가?

2. 연구 절차와 방법

2.1 연구참여자

의도적 표집 방법[17]으로 중증 발달장애 아동 대상 임상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사로, 연구자의 동료를 포함하여 소개받은 6인을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조건은 1,040시간 이상의 음악치료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석사 학위를 소지한 이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the Fifth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8]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는 고도(severe)와 최고도(profound), 자폐 범주성 장애는 3단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심각도로 진단받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중재 경험이 있는 이들, 전문 음악치료사로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로 구성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yr)	gender	clinical field	career (yr)
A	35	female	special-education school	4
B	34	female	special-education school, hospital	5
C	39	female	disabled children's day-care center	10
D	43	male	disabled welfare center	9
E	42	male	special-education school	7
F	42	female	disabled welfare center	14

2.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의 보관과 폐기, 참여자 권리, 보상 및 피해 등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참여자들의 동의 후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 포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졌다. 1차 심층 면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Zoom플랫폼을 활용하여 평균 9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이후 연구자와 참여자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전화 면담,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활용하여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질문의 구성은 현재 중증 장애인 대상 임상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 전공 박

사 2인과의 대화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중증 발달장애 아동과의 음악치료 임상 경험은 어떠한가요?'를 중심 질문으로 하였으며, 질문의 순서나 세부 질문은 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하위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에서 음악의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 2) 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른 특별한 음악적 개입이 있나요?
- 3) 음악치료시간에 어떤 도전적 상황이 발생하나요?
- 4) 그런 행동들에 대한 개별적인/음악적인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5) 음악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요?
- 6) 중증 발달장애 아동 세션에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고려한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2.3 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은 Colaizzi[18]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진술에 담긴 공통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듣고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며 주요 키워드를 메모하였다. 둘째, 진술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중복되는 표현과 주제와 관련 없는 진술은 배제하여 221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셋째, 공통적 의미를 토대로 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주제, 주제 모음, 범주로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독립적 입장에서 갈때 기식 분석을 반복하며 의미단위를 좁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의 기능과 유형, 행동의 이유, 참여자의 개입과 방법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를 시도했다. 넷째, 도전적 행동의 위험성 및 부정적인 측면의 발현 정도에 따라 참여자들의 음악치료 내에서의 개입을 3가지의 범주로 분류하고 주제 모음과 의미 단위를 재구성하였다. 다섯째, 참여자들의 경험내용을 바탕으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음악 개입 제안을 정리하며 최종 기술을 마무리하였다.

2.4 연구의 진정성 및 엄밀성

연구의 진정성을 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친밀도 유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 안에서 진솔한 경험 자료를 얻고자 했다.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연구자의 치료 철학을 미리 점검하였으며 이것이 인터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언만 하였다. 또한 연

구자가 자료를 코딩하고 의미를 추출한 후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하는 전문가 및 질적연구자들과의 확인 작업을 준수했다. 이는 Guba와 Lincoln[1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천이었다. 또한 Padgett[20]의 제안에 따라, 엄밀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분석 내용에 관한 참여자 귀환과 재확인을 하였다. 코딩단계를 거듭하며 참여자들에게 정리된 자료를 SNS메세지로 발송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고 싶은 부분, 해석의 오류 등을 점검하며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중증 발달장애 아동 음악치료사의 음악 개입 경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도전적 행동 예방 차원의 개입,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음악적 개입, 돌발 상황에 따른 비음악적 개입의 3가지 카테고리 범주화하여 경험된 내용을 알아보았다(Table 2 참조).

Table 2. Categorization of experiences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Musical interventions to prevent challenging behavior	Engaging in music to prevent task avoidance and dis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of favorite songs to induce interest - Control vitality, such as inducing relaxation and encouraging motivation - Setting performance goals and presenting tasks tailored to the child's functional level in each area
	Utilization of auxiliary tools for participation induction and various sensory stim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ng musical AAC for facilitating effective expression of demands - Using equipment based on child's mood and health status. - Utilizing audio and videos for enhancing motivation
Musical interventions to support challenging behavior	Use song lyrics to recognize and reinforce self-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gs with lyrics reflecting the observable behaviors of the child - Songs with lyrics supporting and encouraging desirable behaviors - Songs with lyrics containing praise, positive emotions, or/and soothing elements
	Instrument playing for controlling and transitioning challen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lecting stereotyped and self-stimulating behaviors through repetitive pattern play - Reflect, support, and control movement through the

	behavior	dynamism of the elements of music - Transforming aggressive/destructive behaviors and sexual behaviors into musical instrument playing to release energy, redirect attention, and regulate emotions.
	Playing for discovery and expansion of possibilities beyond challenging behaviors	- Recreated and improvised songs reflecting voice or action - Improvisation that opens the passage of emotions - Leading to freedom and joy through playful improvisation - Improvisation to bring out spontaneity and potential
Non-musical intervention in response to an unexpected situation	Safety and hygiene come first	-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physiological and emotional needs - Collection and removal of instruments according to destructive behavior
	Temporary extinction of musical stimuli	- Disable music that stimulates aggression or arousal - Reading emotions and erasing uncomfortable music to prevent music from becoming violence - Providing relaxation when there is a feeling of resistance to therapist's contact

3.1 도전적 행동 예방 차원의 음악적 개입

3.1.1 과제 회피, 이탈 방지를 위해 음악 안으로 끌어들이기

참여자들은 선호곡을 활용해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지만, 중증 발달장애 아동은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 흥분하며 공격적 에너지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우울, 무기력, 무반응, 비반응 등으로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참여자들은 음악의 볼륨이나 음향적 요소를 활용한다. 단순한 수준부터 풍성한 수준까지 단계별로 적용하여 이완을 유도하거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기분 환기를 위해 음악을 활용한다. 또한 인지, 의사소통, 정서, 사회성, 운동영역에서 각각 다른 아동의 개인별 발달 수준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음악 활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컨디션 기록이 심한 아이가 있는데 흥미나 의욕이 없고 활동을 하기 싫어하는 날에는 지시적인 활동보다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먼저 이완을 유도해요. (참여자B)
아이의 에너지 수준이 낮을 때는 악기 중에서 진동이 많은 큰 드럼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소리의 피드백도 크*

고 그림을 치는 신체 움직임 자체가 크니까 큰 볼륨에 맞춰서 활력이 생기기도 하고, 아이가 활동을 좋아해요. (참여자A)

3.1.2 참여 유도과 다양한 감각 자극을 위한 보조 도구 활용

참여자들은 음악적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수단을 만들어 노래를 직접 선곡하게 하거나 그들의 원하는 바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아동이 컨디션에 따라 음악 활동을 거부하는 날이나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싶을 때 스티커, 숫자판, 펀치볼, 탱탱볼, 리본막대, 풍선, 주사위 등을 활용한다고 했다. 또한 참여 유도를 위해 음원이나 영상을 활용하기도 한다.

개비키즈랑 핑크퐁 같은 노래 첫 화면이나 노래 제목이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벽에 붙이거나 모아뒀어요. 그림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듣고 싶은 노래(그림)를 집어와요. (중략) 저는 놀잇감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시간에 뛰든 해야 하잖아요. 아이가 되게 하기 싫어할 때 주사위 던지기를 해요. 1번은 무슨 노래, 2번은 무슨 노래 정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걸 불러줘요. 주사위를 던지면 똥기는 걸 보며 재미있어하고 불워커도 떨어뜨리면서 놀기도 해요. (중략) 가수가 직접 노래하는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색과 음향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동기와 흥미를 갖게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C) 자폐 아동인데 숫자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음악 활동을 거부하는 날이면 달력을 보면서 숫자를 같이 읽어요. 아이 마음이 좀 풀리면 숫자에 멜로디를 넣어서 불러요. (참여자D)

3.2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음악적 개입

3.2.1 자기 행동 인식 및 강화를 위한 가사 활용

참여자들은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가사로 반영하여 아동이 행동을 인식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이나 목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가사를 만든다. 칭찬을 담은 가사로 행동을 강화하고, ‘괜찮아, 사랑해, 좋아’ 등 수용적이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흥분하는 경우 허밍을 사용하기도 한다.

상동행동이 심한 아이였는데,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서

손뼉도 같이 치고 “지금 웃고 있네, 바닥을 봤어,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어”라고 하며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을 반영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손뼉을 쳐요”라고 하며 제가 손을 두드려 주기도 했어요. 커피소년의 피베리를 개사해서 반복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노래가 점점 진행되면서 아이가 음악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상동행동이 줄어들었어요. 저랑 계속 노래를 하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면서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A) 한두 단어로 된 가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사와 연결해서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구요. (참여자B) 아이가 피아노 의자도 확 밀고 마스크도 막 벗기고 얼굴도 활짝 때도 있었는데요.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사가 없는 음악을 틀어놓고 현재 상황을 계속 노래로 불러줬어요. ‘복을 치고 있네, 복을 치고 있네, OO이 복을 연주해.’ (참여자F)

3.2.2 도전적 행동 조절 및 전환을 위한 악기연주

간혹 아동들은 감각 추구나 관심의 표현으로 참여자들의 손을 비비거나 안기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며, 지속적 주의 시간이 짧아 산만하거나, 불안한 정서에 의한 공격 및 상동행동을 보인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음악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악기 연주로 주의를 전환하고, 연주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동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한다.

아동이 좀 과격하게 행동할 때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피아노 코드를 쿵쿵쿵 친다든지, 큰소리로 드럼을 두드려요. 아이의 에너지 레벨에 맞춰 비슷하게 연주해 주면 에너지가 발산되고 또 그게 공감받는 것이고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중략) 책을 찢고 던지는 아이가 있는데, 대체로 찢어도 되는 종이를 주고 던질 수 있는 볼풀 공 같은 걸 줬어요. 거기에 맞춰 전 즉흥연주를 하는 거죠. (참여자D)

계속 “집에, 집에, 집에”라고 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가 있었는데 힘도 세서 행동 제지가 힘들어요. The Clap Clap Song은 계속 뽀뽀뽀이 반복돼서 리듬 특징이 명확한 곡이에요. 이 음악을 틀어주면 아이가 음악 안으로 확 들어오는 게 보여요. 계속 리듬에 맞춰서 연주해요. 그 순간은 문제행동도 소거되고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듣는 아이인데 이 노래를 틀어주면 다른 누구보다 잘해요. (중략) 엄청 꼬집는 아이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싫다는 표현을 꼬집는 길로 했어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들어볼

래?" 하면서 들려줬어요. 매회기 조금씩 반복하니 거부하는 표현이 줄었어요. (참여자A)
 아이가 손을 자꾸 바지 안으로 넣어요. 못하게 제지해도 다시 계속 넣어요. 아이 손을 잡고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체 활동으로 유도했어요. 이 활동을 매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날에는 바지 안으로 넣는 행동이 많이 줄죠. (참여자F)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양양 무는 아이가 있었는데도 너무 많이 물어서 굳은 살이 배겼거든요. 아이가 문의의 끈에 꽂혔는데 그걸 활용해서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개 더링 드럼을 연주해요. (참여자C)

3.2.3 도전적 행동을 넘어 잠재력 발견과 확장을 위한 연주

참여자들은 아동의 능력에 대해 참여자가 먼저 제한을 두는 것을 지양하며 치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한다. 인지 수준뿐 아니라 정서 수준을 음악으로 반영해 줄 때 아동들이 감정의 통로를 열어가며 음악적 감수성이 발전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들이 자주 반복하는 음성이나 행동을 반영하여 재창조 연주 혹은 즉흥 노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때 아동의 자발성이 증가하고 잠재력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치료사와 상호교류를 하는 놀이적 즉흥 연주는 아동에게 재미를 주어 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동기를 주고 자신도 뭔가 시도해 보고 싶은 욕구를 일으킨다고 한다. 또한 아동마다 다른 관심이 전환되는 속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관심이 전환되는 속도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양한 음악 자극을 많이 사용하고 다른 악기도 계속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관심이 있는 게 생기면 집착하던 악기를 딱 버리고서 오거든요. 스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참여자C)

J가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음악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그렇그렁해지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음악을 통해서 아 이랑 저랑 음악, 이렇게 세 대상이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장애를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음악아를 제가 만난 것 같은, 아이가 음악 안에서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 오버 더 레인보우랑 젓가락 행진곡만 고집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른 노래는 다 거부해요. 하루는 아이가 먼저 덩딩딩하며 피아노를 치길래 제가 그냥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또 덩딩딩 하길래 제가 아이 몸에다가 덩딩딩~덩딩딩~했더니 또 막 깔깔깔 (중략) 제가 따라라라라라라~하니 또 웃으며 비슷하게 모방했어요. 점점 약간 발전도 되고 변

형도 되면서 아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건반에서 즉흥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음악이 되고 재밌네' 이런 것을 느끼면서 확장하는 느낌... (참여자A)

3.3 돌발 상황에 따른 비음악적 개입

참여자들은 음악적 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적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음악 자극을 일시적으로 소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안녕을 우선시 하였으며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의연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3.3.1 안전 및 위생이 우선

참여자들은 아동의 자해, 타해, 기물 파손 등의 행동이 나타나거나 치료실 밖으로 이탈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생리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하여 처치하며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제거한다. 도전적 행동의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음악 소리가 아동을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여 공격행동과 흥분을 유도할 가능성도 설명했다. 안전뿐 아니라 위생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도 중재가 중시되는데 배설, 배변에 대한 경험도 있었다.

자해 행동이 한 번 나오면 어떤 음악적 중재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중략) 음악은 더 자극할 뿐이거든요. (참여자C)

환경 자체에서 최대한 자극이 없게 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던지면 위험한 악기들은 치웠어요. 꼬집거나 할퀴는 아이가 있어서 긴소매 옷을 입었고요. 이동이 쉬운 기타로 세션을 했는데 아이가 저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면 빨리 피해야 하니까요. (중략) 치료시간에 소변을 누는 학생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와도 계속 의자에 앉아서 소변을 뒀어요. 그래도 계속 진행했는데 어느 날 대변을 본 거죠. 거부의 표현으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표현되면 음악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음악이 오히려 아이를 자극할 수도 있어서요. (참여자E)

3.3.2 음악 자극의 일시적 소거

참여자들은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였다. 심하게 떼를 쓰고 격하게 고함을 지르거나 울 때, 치료사의 연주를 방해하고 피아노 뚜껑을 닫는 것은 아동이 음악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다고 이해하고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귀를 막는다든지, 커넥션을 끊어버리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느꼈어요. 그럴 때는 휴식을 주는 거죠. (참여자D)
 물론 나의 정체성이 음악을 가지고 내담자와 작업을 하는 거지만 어떤 동기 부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이밀면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는 폭력이고 이 친구들의 요구를 내가 받아주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는 너끈히 음악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E)
 음악실에 억지로 들어와서 울고 있는데 음악을 들려주는 건 폭력 같았어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음악보다는 자립을 위해 뭘 알려줘야 하나를 더 고민했어요. (참여자B)

4. 도전적 행동 유형에 따른 음악 개입 제안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 유형에 따른 음악치료에서의 음악 개입 제안을 정리하였다.

4.1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자해 또는 타해 행동은 자신의 신체를 때리거나 무는 행위 또는 타인의 신체를 꼬집거나 때리고 미는 행동,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던지는 행위 등으로 그 강도에 따라 대처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첫째, 전조 증상을 파악해야 한다. 전조 증상이 보일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완할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하며 적극적 활동보다는 수용적 기법을 활용한다. 둘째, 공격 및 파괴 행동의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불안, 긴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과제 회피 및 요구 획득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불안, 긴장의 경우 조용한 음악을 제공하여 휴식 시간을 갖거나 이완 활동을 제공한다. 과제 회피의 경우에는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아동이 좀 더 쉽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정확한 리듬을 연주하는 과제라면 자유롭게 드럼을 두드리는 과제로 난이도를 하향한다. 또한 요구 파악을 위해 AAC나 몸짓언어를 사용한다. 노래의 제목을 잘 알 수 있는 그림이나 대표적 캐릭터 그림을 프린트하여 아동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파손 행동이 의도적인 파괴 행동인지 놀이를 위한 행동인지를 파악하여 수거하거나 놀잇감을 제공한다.

4.2 주의 분산 행동

손이나 몸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행동이나 자기 자극 행동은 안전상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중재 목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도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하고 심심해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인지 과도한 감각 제공을 차단하려는 것인지, 불안, 긴장, 흥분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된다. 첫째, 컨디션이 나쁜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동을 제지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배경 음악을 활용한다. 둘째, 무료하고 심심할 때는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 활동을 제공한다. 셋째, 착석이 어렵고 빙글빙글 돌고 뛰는 아동의 경우 신나게 뛰고 춤추는 활동 후 집중을 요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4.3 성 관련 행동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성 관련 행동은 아동의 인지 및 정서, 신체 발달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성 관련 행동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기 성기 만지기를 호기심 또는 심심할 때 놀이로 하는 경우와 성적 의도를 가지는 경우이다. 놀이일 경우 주의를 전환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제공할 수 있고, 성적 의도의 경우에는 성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가르칠 수 있다. 놀이 및 감각 추구의 경우, 두 손을 사용하는 에그 셰이커, 카바사 등의 악기연주 또는 재미있는 음악 놀이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치료사와 손을 잡거나 손 유희 활동, 클레이 활동, 손을 자극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한다. 성교육에서는 그림이나 노래를 활용하여 성생활에 대한 에티켓을 가르쳐 행동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4.4 기타 행동

중증 발달장애 아동은 반응의 정도가 아주 미약하거나 무관심으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과도한 과잉행동이나 교실을 이탈하고 강박적으로 행동하여 음악 세션을 진행하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비반응이거나 무반응일 때, 치료사의 목표를 버리고 철저히 아동의 수준에 맞춘다. 그리고 시선의 움직임, 어깨 들쭉임, 몸의 방향 등 아동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아동이 선호하는 소리나 악기, 감각 교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치료사의 임무로 생각한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통해 아동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과잉행동은 불안, 긴장으로 인한 것일 경우 이완할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하고, 음악과 움직임의 관계를 파악하여 아동의 행동을 반영, 지지하여 먼저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돕는다. 걷고 뛰기 등 대근육 활동으로 에너지를 발산 후 좀 더 집중력을 요하는 소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시도한다.

강박행동의 경우 반복적인 음악 패턴을 활용하여 우선 아동의 선택을 수용 후 주의 전환을 시도한다. 소리를 지르는 아동, 우는 아동,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고집에 의한 것인지 불안감에 의한 것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관심 끌기의 경우 무관심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음악적 행동이나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사회적 강화와 음악적 강화를 제공한다. 소리 지르는 것과 우는 것은 음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을 강화하는 의미로 전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만나는 음악치료사의 중재 경험 중 도전적 행동을 중심으로 음악 개입에 관한 경험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도전적 행동 예방 차원의 음악 개입,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음악 개입, 돌발 상황에 따른 비음악적 개입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도출하여 경험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 유형에 따른 음악 개입 제안을 정리해 보았다. 분석된 결과를 아울러 종합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담자 필요에 따른 음악의 기능적 사용에 관한 논의이다. Wheeler[21]에 따르면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음악-치료사의 독특한 관계 안에 내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음악 경험을 활용하는 전문가이다.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필요가 다양하겠지만 도전적 행동은 그들의 소통적 이슈를 담고 있어 자신의 필요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과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의 유형은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주의 분산 행동, 성 행동, 기타 행동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음악은 행동과 감정을 조절

하고 전환하는 개입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의 도전적 행동의 소거, 조절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치료를 시행한다면, 각 내담자의 정서와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치료환경 구성, 치료 목표, 수행난이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음악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류 증진에 초점을 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음악표현 안에서 아동의 잠재 가능성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음악치료사의 직관성과 유연성에 관한 논의이다. 음악치료의 입장에서 어떤 내담자를 만나든 치료사는 직관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고, 각 상황에 따라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로 음악 개입을 해야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도전적 행동에서 위험성을 수반하기도 하여 더욱 예민하게 임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사는 내담자와 더욱 민감한 소통의 노력을 하고, 때때로 음악을 수용적-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내담자의 필요를 채워야 할 것이다. 이는 비지시적인 음악의 개입, 모방과 반영 기법의 즉흥 연주가 상동행동의 감소와 사회, 의사소통 기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양은아[15]와 이은혜[16]의 연구를 지지한다. 치료사의 직관에 따라 아동의 컨디션에 맞춰 조율한 음악적 환경은 아동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통해 예방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의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4]을 따르는 내용이다. 또한 김미옥과 김고은[22]의 제안과 같이 발달장애인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하는 개입을 통해 긍정적이고 차분한 대응,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방증한다.

셋째, 치료사가 내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 발현 이유, 행동의 유형과 기능, 대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알고 있고, 돌발 행동에 대한 예측과 동시에 어떤 대처를 할지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안정감 있는 치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치료사의 긴장 완화뿐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편안한 환경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치료사의 소진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안나[23]의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이는 음악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내담자의 욕구 충족에 대해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으로써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맺고 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부정적 자극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

다. 대부분의 음악치료 문헌에서는 음악의 효과성과 유익, 치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초보 음악치료사들이라면 음악이 폭력이 되는 상황에 대해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과정 중 내담자가 소리 자체를 통증 또는 불편으로 인식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음악이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음악치료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서 음악이 부정적으로 자극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는 것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지원과(7)에 의하면 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는 중증 발달장애 아동과의 음악치료 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편을 지각해야 하고,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음악 개입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탐구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증 발달장애인 음악치료 현장의 음악치료사들에게는 공감을 전달하고 초보 임상가들에게는 막막함에 대한 소소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임상 대상을 중증 발달장애 아동으로 제한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와 전 연령을 포함한 접근에 대해 상세한 경험을 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 개입 이외에 음악치료사의 소명 의식, 철학, 태도, 윤리 등의 이슈들은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치료사의 배경은 그에 따라 경험되고 통찰되는 내용은 상이할 수 있기에 더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중증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현장의 더욱 다양한 상황과 관점에서 살펴보는 후속 연구와 음악치료사가 겪을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의 기능과 유형에 따른 음악 중재 방안에 관한 매뉴얼 개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Guide to raising disabled infants and toddlers Volume 1 Paren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20-34,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6.
- [2] E. Emerson, Challenging behaviour : Analysis and intervention in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pp.3-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3] P. Doehring, B. Reichow, T. Palka, C. Phillips, L. Hagopian, "Behavioral Approaches to Managing Severe Problem Behaviors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and Related Developmental Disorde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Vol.23, NO.1, pp.25-40, 2014.
DOI: <https://doi.org/10.1016/j.chc.2013.08.001>
- [4] Nation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llenging Behavior Intervention Manual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10-39,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0.
- [5] B. A. Iwata, M. F. Dorsey, K. J. Slifer, K. E. Bauman, G. S. Richman, "Toward a functional analysis of self-injury",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Vol.27, pp. 197-209, 1994.
DOI: <https://doi.org/10.1901/jaba.1994.27-197>
- [6] H. J. Jung, J. I. Kim, J. E. S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by Life Cycle and Challenging Behavio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25, No.1, pp.127-147, 2021.
DOI: <http://doi.org/10.34262/kadd.2021.25.1.147>
- [7] Seoul Disabled Self-Reliance Support Division, Daytime Activity Manual for Adul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 operating instructions, pp.16-18, Seoul Disabled Self-Reliance Support Division, 2019.
- [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pp.31-60, Washington, APA, 2013.
-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sabled Persons Policy Bureau Disability Services Division,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 and Families Project Guide, Volume IV, pp.9-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 [10] E. H. Boxill, Music Therap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pp.21-29,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98.
- [11] J. Stephenson, Music Therapy an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43, No.3, pp.290-299, Sep. 2006.
- [12] S. R. Kim, *Impact of Music Therapy on Behavioral Problems Among Adul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mainly on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pp.69-74, 2016.
<http://www.riss.kr/link?id=T14505622>
- [13] E. A. Yang, "Meaningful Experiences of the Severely-Impaired Children in Music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8, No.2, pp.45-61, 2006.
UCI : G704-002207.2006.8.2.002
- [14] J. M. Yeo, M. O. Kim, "The Effect of a Orff music Therapy Program on Problematic Behaviour,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Interaction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4, No.3, pp.67-96, 2018.
DOI: <https://doi.org/10.33770/JEBD.34.3.4>

- [15] E. A. Yang, "How Reflecting in Group Music Therapy Affects Disable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mmunicative Skill Development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7, No. 3, pp.27~45, 2013.
UCI : G704-SER000009845.2013.17.3.005
- [16] E. H. Lee, K. S. Kang,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Based on an Improvisation Program Using Imitation and Reflection Techniques on the Stereotyped Behavior of Autistic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15, No.3, pp.47-68, 2011.
UCI : G704-SER000009845.2011.15.3.005
- [17] Irving Seidman,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5th*, pp.91-115, Seoul: Hakjisa, 2022.
- [18]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M. King,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48-71,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19] E. G. Guba, &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pp.183-188,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 [20]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3rd Edition: Challenge and Rewards*, Thousand Oaks, pp.209-213, CA: Sage, 2016.
- [21] B. L. Wheeler, Music Therapy as a Profession. in B. L. Wheeler (Ed.), *Music Therapy Handbook*, pp.5-16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5.
- [22] M. O. Kim, G. E. Kim, "Issues and Prospects on Challenging Behaviors Supports of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Vol.56, pp.59-94, 2017.
- [23] A. N. Choi, *The effect of challenging behavio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music therapis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ense of calling*,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93-94, 2022.
<http://www.riss.kr/link?id=T16624308>

황 정 이(Jeong-I Hwang)

[정회원]



- 2008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음악치료전공 (음악학석사)
- 2022년 8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음악치료, 발달장애, 특수교육

박 지 원(Ji-Won Park)

[정회원]



- 2021년 2월 :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 박사(Ph. D.)
- 2019년 9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객원교수
- 2022년 9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국음악치료심리재활학회 학술위 원장

<관심분야>

음악치료, 음악치료 슈퍼비전, 질적연구, 증증 장애

문 소 영(So-Young Moon)

[정회원]



- 2000년 12월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음악치료학 석사 (M.Mus.)
- 2008년 8월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음악치료학 박사 (Ph. D.)

- 2015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주임교수
- 2018년 10월 ~ 현재 : 한국음악치료심리재활학회 학회장

<관심분야>

음악치료, 심리재활, 노인복지, 신경학적 음악치료